

특강 Ⅲ

정보화시대의 언어치료: 구개열언어를 중심으로

전북대 임상언어병리학과 교수
김 현 기



구개열 환자들은 조기에 수술하여 주고 평소 언어 관리 만 잘 해 주면 정상인들의 언어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부 환자 중에는 조기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장애를 일으켜 사회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구개열 환자의 언어 장애는 공명 장애, 조음장애 및 음성장애 등이 있다. 공명장애는 과비음과 저비음, 비강누출 및 맹관 장애 등이 있다. 조음장애는 성문 폐쇄음, 인두 마찰음화, 연구개음화, 설측음화 등 있고 음성장애는 기식음화 등이 있다.

구개열 언어의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가 있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 공학의 발달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한 언어 평가의 세계 표준화를 IALP 및 ASHA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언어 평가 방법의 객관화를 통한 언어 치료 효과의 공유화를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평가 음성의 파일 제작을 요청하고있다. 이러한 요구는 정보 통신 시대 의사소통 체계가 인간과 인간은 물론 인간과 기계가 서로 대화해야하는 현실에서 장애 음성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음성 기초 자료 수집의 과정이기도 하다. 구개열언어의 객관적인 평가 장비는 음향학적, 생리학적 및 공기 역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Nasometer, CSL, Visi-Pitch, Electropalatography, Aerophone II 및 Macquiere 등이 있다. 이러한 장비 중 구개열 언어 평가 및 치료에 임상적 및 언어 치료사의 팀워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는 Nasometer이다. 예를 들어 Shin's criteria(1995)는 nasalance의 정량적인 수치를 임상에 적용하는 평가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 밖에 발음 장애의 형태는 스펙트로그램으로, 음성 장애는 jitter 등으로, 조음장애는 EPG로, 공기 유량 및 공기 압력은 APII 등으로 정량적으로 측정 한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 할 때 구개열환자의 또 다른 정보·통신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김현기 (金賢起) 교수 약력

2002년 3월 전북대학교 대학원 임상언어병리학과 주임교수

1982년 3월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졸업

1983년 10월 University of Strabourg, 실험음성과학전공 석사

1987년 7월 University of Strabourg, 실험음성과학전공 박사

1996년 2월 미국 UCLA 객원교수

2000년 3월 전북대학교 음성과학 연구소장

2001년 10월 한국임상언어청각학회 부회장